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MarketWatch: 5월 도매 재고 변동 없다... 상품 생산 줄인다
- WSJ: 미 인플레이션 싸움 마지막 단계 가장 힘겹다
- The Economist: 미국 경제는 실업률 상승이 필요한가?

[미국 금융]

- WSJ: 기업 실적 시즌은 주식 시장 랠리의 다음번 시험대

[서부 항만]

- CNBC: 미 서부 해안 항만 노조 "캐나다 파업으로 우회 컨테이너선 운항 안 할 것"

[부동산]

- CNN Business: 주택 시장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?

[미중 관계 및 중국]

- WSJ: 엘렌 장관 "중국방문, 양국 대화 재개에 도움"
- WSJ: 중국의 디플레이션... 반등 모멘텀 약세 탓

[반도체]

- WSJ: 칩 제조업계 "AI 구동 위해 레고처럼 '칩렛' 쌓는 중"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여전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슈퍼마켓
- Bloomberg: Amazon Prime Day 예전 같은 효력 없다

[보고서]

- McKinsey & Company: B2B 영업의 미래: 인재 전략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MarketWatch: U.S. wholesale inventories unchanged in May 5월 도매 재고 변동 없다... 상품 생산 줄인다

- 미국의 도매 재고는 4월의 감소에 이어 5월에도 변동이 없었다. 이는 경제가 불확실해 기업들이 상품 생산이나 비축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.
- 오늘 월요일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의 매출이 0.2% 감소했다. 재고 대 판매 비율(The inventory-to-sales ratio)은 1.40개월에서 1.41개월로 늘었다.
- 올해 이같은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이며, 이는 경기 둔화 또는 팔지못한 제품의 과잉 현상 신호로 볼 수 있다.
- 따라서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.

MarketWatch 기사

WSJ: Last Mile of the Inflation Fight Will Be the Hardest 미 인플레이션 싸움 마지막 단계 가장 힘겹다

- 희소식은 이번주 연방 노동부는 6월 인플레가 3% 하락하고, 핵심 소비자 물가 인플레가 5.3%에서 5%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 핵심 인플레가 향후 수개월간 3.5%에서 4% 사이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망하다.
- 그러나 경제 호조가 계속된다면 연준 인플레 목표치 2%는 힘들다.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이 악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.
- 물론 주택 및 중고자동차 부분의 가격 인하가 핵심 인플레 지표를 하락시키겠지만 경제가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세는 계속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The Economist: Does America need more unemployment? 미국 경제는 실업률 상승이 필요한가?

- 올 여름 시즌에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다. 예컨대, 안전요원이 없는 수영장, 상담사들이 없는 여름 캠프, 웨이터가 절실한 레스토랑 등 새로운 '전통'이 생겨났다.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, 미국 노동 시장은 이같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.
- 경제 자체가 인력난의 원인입니다. 노동시장은 여전히 놀라운 수준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.
- 미국의 실업자 1명당 1.6개의 일자리가 있으며, 이는 2022년 중반 이후 약간 감소한 수치이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.
- 6월 시간당 소득은 연율로 4.4% 증가했으며, 이는 연준 목표치인 2%의 약 2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한다. 연준 애틀랜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임금 상승률은 약 6%로 예상된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강한 고용 배경 때문에 더 제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.
- 물론 낙관론자들은 노동 시장이 냉각되기는 하지만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- 비관적인 반박은 경기 냉각이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. 노동 시장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집스럽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중앙 은행은 긴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.

The Economist 기사

[미국 금융]**WSJ: A Soft Corporate-Earnings Season Poses Next Test for Stock Market Rally****기업 실적 시즌은 주식 시장 랠리의 다음번 시험대**

- 요지: 분석가들은 S&P 500 기업들이 3분기 연속 수익 감소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번주에 불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.
- 기업들은 1년 넘도록 인플레이, 수요 위축, 연준의 금리 인상과 싸우고 있다.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 이익에 대해, 또한 주식이 가치에 비해 비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기업 보고서를 예상하고 있다.
- 2023년 미국 증시는 S&P500 지수가 15%, 나스닥 지수가 31% 상승하며 40년 만에 가장 좋은 출발을 기록하고 있다.
-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S&P500 기업들의 분기 수익이 3분기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. 팩트셋에 따르면 2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.2% 줄 것으로 예상된다.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.

WSJ 기사

[서부 항만]**CNBC: U.S. West Coast ports union says it won't work diverted containerships amid Canada strikes****미 서부 해안 항만 노조 "캐나다 파업으로 우회 컨테이너선 운항 안 할 것"**

- 미국 서부 해안 항만 노조가 우회 컨테이너선을 작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 이는 원래 밴쿠버 항으로 향하던 컨테이너 선이 항로를 변경하여 시애틀 항으로 우회한 것을 말한다.
- 캐나다 서부 해안 항구의 노동 파업이 7일째 이어지면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.
- 현재 밴쿠버 항에는 16척의 선박이, Prince Rupert에는 6척이 정박해 대기 중이다. 또한 더 많은 컨테이너 선이 캐나다로 넘어가고 있다.
- 최종 목적지가 변경된 컨테이너를 ILWU가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. 보안상의 이유로 컨테이너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CNBC 기사

[부동산]**CNN Business: Why isn't the housing market behaving the way it's supposed to?**

주택 시장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?

-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이 대출에 부과하는 이자율이 높아진다.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대출 비용 상승 부담을 주는 것이다.
- 연준이 2022년 3월 첫 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전까지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는 2019년 5월 이후 4%를 넘긴 적이 없었다. 하지만 연준 금리 인상 결정으로 금리가 상승하였고, 이는 4.42%로 높아졌다.
- 이후 네 차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는 작년 11월 7.08%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전까지 금리와 함께 계속 인상 되었다.
- 모기지 금리는 몇 주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. 7월 첫 췌주에 모기지 금리는 6.81%를 기록했다. 이는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.
-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5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9만 6천 1백 달러로 전년 대비 3.1% 하락했다. 그러나 중간 가격은 한 달 동안 2.6%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.
- 5월 새 주택 중간 가격은 41만 6천 3백 달러였다.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7.6% 하락한 수치이지만, 월별로는 3.5% 상승한 수치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[미중 관계 및 중국]

WSJ: Yellen Trip Aids Fragile Effort by U.S., China to Keep Talking 옐렌 장관 “중국방문, 양국 대화 재개에 도움”

- 옐렌 미재무장관의 북경 방문이 대화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됐지만 깊게 고착화된 긴장 관계에 회복에는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- 양국 정부는 이틀간의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, 미국의 대중국 기술 수출에 대한 첨예한 이견을 인정했다.
- 옐렌 장관은 “최근 수년동안 양측이 거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성공했다”며 “서로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행동에 서로 자제하기 위한 것이 방문 목적이었다”고 밝혔다.

WSJ 기사

WSJ: Deflation Looms in China as Rebound Loses Steam 중국의 디플레이션... 반등 모멘텀 약세 탓

- 중국 소비자 인플레이가 4~5월에 미미하게 성장했고, 6월에는 변동이 없었다. 이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.
-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진 제조업 부문의 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. 이는 국내 수요 약세에 따른 해외 수요 부진 탓이라고 국가 통계국이 오늘 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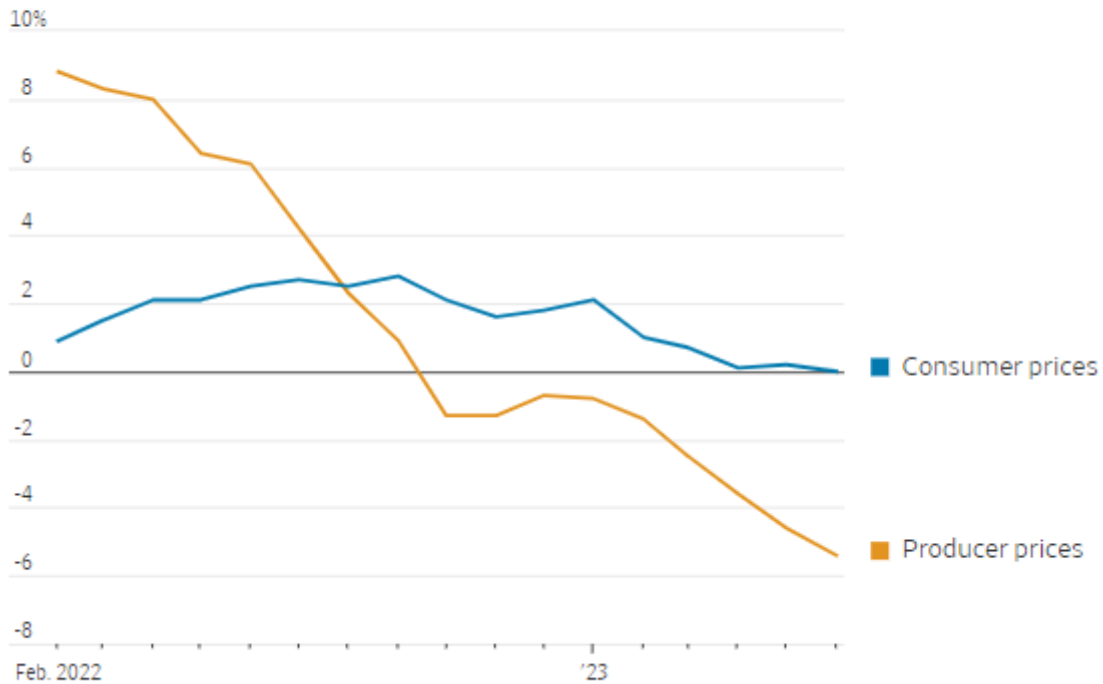
요일에 보고했다.

- 5월에는 젊은 층 근로자 실업률이 20% 이상으로 치솟았다. 중국 제조업 활동은 6월에 3개월 연속 위축 되었으며, 서방 경제에 대한 수출도 약화 되었다.
- 소비자 물가는 4월에 0.1%, 5월에 0.2% 상승한 후 6월에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.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.
- 변동성이 큰 분야를 제외하면, 중국의 핵심 인플레이는 5월 0.6%에서 6월 0.4%로 둔화되었다.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진을 반영한 것이다.

Deflation Risk

China's consumer inflation slowed to 28-month low in June

Year-over-year change in prices



Source: Wind; China'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

WSJ 기사

[반도체]

WSJ: To Drive AI, Chip Makers Stack 'Chiplets' Like Lego Blocks

칩 제조업체 “AI 구동 위해 레고처럼 ‘칩렛’ 쌓는 중”

- 칩 제조업체들이 레고 블럭처럼 첨단 칩을 쌓아 올리는 설계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.
- ‘칩렛’(Chiplets)은 더 강력한 칩을 더 쉽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다. IBM의 연구 책임자 Darío Gil은 “거대한 칩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”이라고 말했다.
- AMD, Intel, MS, Qualcomm, 삼성을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들은 작년에 칩렛 설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 연합을 결성했다. 1조 불 규모의 칩 제조 업체

인 Nvidia도 나중에 합류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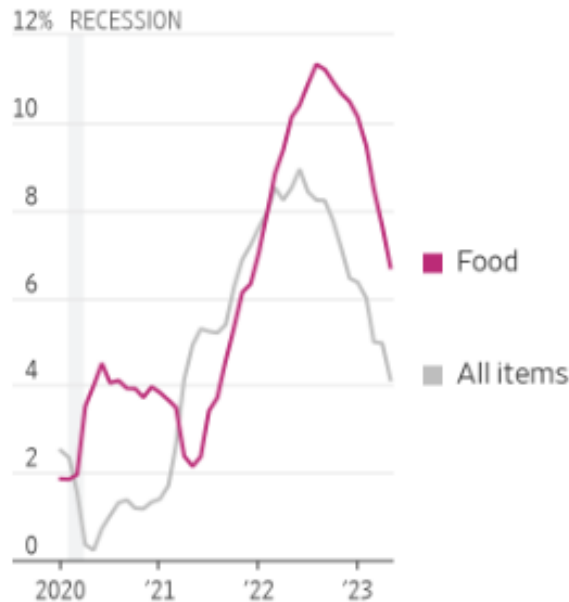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The Supermarket Aisle Where Prices Are Still Soaring 여전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슈퍼마켓

- 연준이 10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덕분에 일부 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렸다. 하지만 중심 매장(the center store)라고 불리는 곳은 아직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다.
- 시장 조사 기관인 NielsenIQ에 따르면 5월 4째주 기준 52주동안 감자칩 가격은 개당 3.05불로 전년 대비 17%, 마요네즈는 용기당 4.93불로 23%, 애플 소스는 22% 상승했다.
- 미국 주요 소매업체 CEO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. 그들은 미국 포장 식품 대기업의 추가 가격 인상엔 저항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.
- “모든 식품 분야의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”라고 월마트 CEO Doug McMillon이 5월 투자자들에게 말했다.

Consumer-price index, change from a year earlier



Note: Seasonally adjusted.

Source: Labor Department via St. Louis Fe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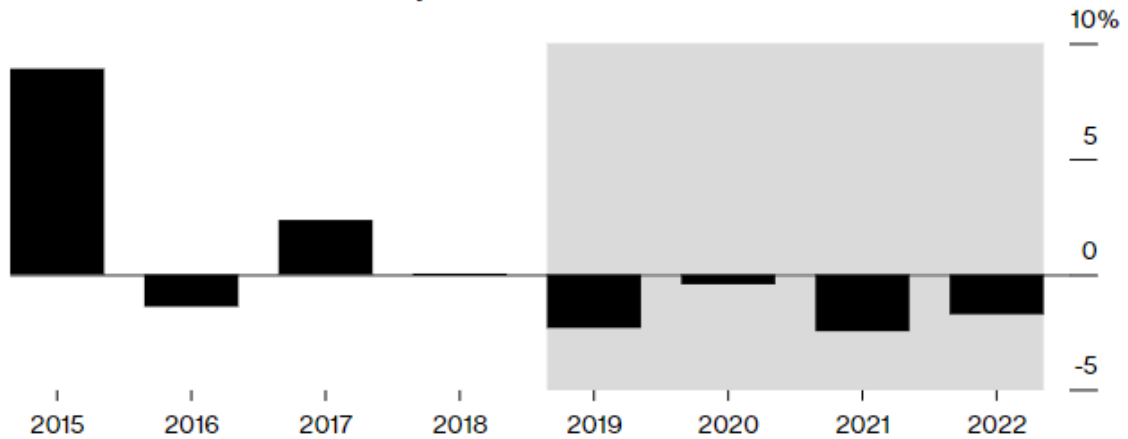
WSJ 기사

Bloomberg: Amazon Prime Day Isn't the Catalyst It Used to Be Amazon Prime Day 예전 같은 효력 없다

- 아마존의 Prime Day가 예전과 같은 주가 상승 동력이 아니다. Prime Day는 다양한 품목을 할인하는 날이다.
- 지난 4년간 Prime Day가 있는 주에 주가가 하락했다.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~2019년에는 행사 주간에 주가가 평균 2% 이상 상승했다.
- 이번주 화요일에 시작되는 Prime Day는 올해 약 50억 불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Doug Anmuth가 전망했다.
- 이는 작년보다 13% 증가한 수치이지만, 2020년 30% 증가한 이후 성장 속도는 매년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.

Amazon Shares Have Been Falling on Prime Day Weeks

■ Stock move in week of Prime Days



Source: Bloomberg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Mckinsey: Future of B2B Sales: Building the right team and talent to drive growth in an uncertain environment

B2B 영업의 미래: 인재 전략

- 판매나 영업은 사람에 관한 비즈니스이므로 올바른 인재를 확보하는게 아주 중요하다.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일구는데 필요한 인재 전략과 영업 역할을 재검토 해야 한다.

[현재 투자해야 할 3가지 직책]

1. 하이브리드 판매 담당자: 해당 직원은 디지털을 활용해 대면과 원격 참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. 하이브리드 담당자는 제품 중심의 판매자가 아닌, 조직 전체에서 일하며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공동 개발하는 솔루션 판매자가 된다. 또한 디지털 채널이 제공하는 손쉬운 접근성을 고려할 때 과거보다 고객 확보 업무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. 이에 따라 담당자는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, 가치 기반 가격 책정에 대한 친숙함, 협상 전문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.
2. 내부 판매자: 하이브리드 팀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들었던 지방에 위치한 고객을 잘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내부 영업 채널을 구축

한다.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제품으로 접근할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 특정 영업전략을 파악하게 된다.

- 3. 디지털 영업 담당자: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객 참여 온라인에 인간적인 감동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주로 웹 채팅, 모바일 앱 채팅, 문자 또는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채널에서 보내고 일부 시간을 전화를 사용한다.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자가 구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지원한다.

[B2B 기업의 성과를 위한 4가지 요소]

- 1. 민첩성의 효과: 예컨대 하이브리드 영업사원은 원격 상호 대화를 통해 다른 부서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. 가상 채널을 통한 회의가 더 짧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.
-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매자의 3분의 2는 원격으로 인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또는 디지털 셀프 서비스에 기꺼이 참여하지만, 30%는 예전에 해당 공급 업체에서 구매한 적이 없는 경우 담당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.
- 2. 준비된 인사이트: 고객에게 수준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연구 결과 매출 성장률이 가장 빠른 B2B 기업의 3분의 2가 고객 수준의 지식 정보를 생성/제공하는 반면 성장 속도가 느린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.
- 그리고 판매자는 디지털 도구나 분석을 잘 사용하여 어디에 시간을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.
- 3. 기술 활용: 대부분의 영업 조직은 지난 수년간 습득한 기술과 분석에 익숙해지고 있으며, 이를 사용 및 통합하고 만든 정보를 적용하는 방법을 파악한다(예, iPad, CRM 시스템 접근 기술 등).
- 정보 공유에 대한 내부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데 회사가 효율성과 자동화 도구에 투자해야 한다.
- 4. 재능의 활성화: 영업 조직의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들을 위한 임원이나 상급자 코칭과 멘토링도 재정비 해야 한다.
- 좋은 성장률의 회사는 세일즈맨이 자신의 일정에 맞는 시간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주문형 형식의 원격 교육을 수용하고 있다. 개별 담당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특별히 맞춤형 교육을 만들기도 한다.

McKinsey & Company 원문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美증시 '랠리 시험대' 실적시즌 시작...3분기 연속 이익감소 전망

"S&P 500 기업 2분기 이익, 전년 동기 대비 7.2% ↓ 예측"
3분기에 약 0.3%, 4분기 약 8% 증가로 개선 예상

이번 주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보고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S&P 500 기업들이 3개 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9일(현지시간) 투자자들이 기업 이익이 축소되는 가운데
데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는 시장의 랠리를 위한 시험대가 될 것
이라고 보도했다.

WSJ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라 1년 이상 이어지는
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의 금리인상, 위축된 소비자 수요에 맞서 싸우고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